

‘고액현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도 해산 명령

법원 “불법행위 대책 마련 기대 어려워”...청산인 선임해 피해 변제 진행
‘재산 1조원’ 통일교 측 “싸움 지속할 것”...대법원서 벌리 다툼 이어질 듯

일본에서 고액 현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현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명령을 따지지 못했다.

이날 2심 판결도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현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또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계 해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1천181억엔(약 1조1천억엔)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 전에 기존 직원 약 1천200명 중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실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가정연합은 이들의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에 청산 절차

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정연합 측 변호인은 “믿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속보 등으로 신속히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현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지방법원)은 작년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현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천910억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용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경검문소 빠져나온 이란인 3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육로를 통해 튀르키예로 빠져나온 이란인들 모습. /카프라이=연합뉴스

호르무즈 봉쇄...아태 주요국 “석유 비축량 충분”

호주 30일분...태국·필리핀 60일분

전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과 호주 등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석유 보유량이 충분하다면서 소비자와 시장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크리스 보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호주가 휘발유 30일분·경유 34일분·항공유 32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인 장관은 전국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생겼다는 보도에 대해 “급하게 주유소로 달려가 기름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호주에

충분한 휘발유 비축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호주의 휘발유 공급에 당장 위협이 되는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인 장관은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제 당국이 폭리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도 소비자 당국에 서한을 보내 연료 소매업체들이 “중동 사태를 악용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가격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말했다.

호주는 세계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수출국이지만, 석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태국 정부도 석유 비축량이 60일분으로 충분히 이번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니피 니피탄쁘라팻 태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예니피 장관은 또 이번 전쟁으로 태국 밧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 대비 밧화 가치는 지난해 약 9% 상승, 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과 관광 부문의 경쟁력에 부담이 됐다.

수파지 수틀뿐 태국 상무부 장관은 전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수입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태국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발표에 자국 정유업체 등의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시켰다.

필리핀도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나서서 필리핀 석유 보유량이 50~60일분에 달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에게 확신시켜 드리겠다. 우리는 석유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간, 파키스탄 공습으로 민간인 11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이 무력 충돌 중인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민간인 110명이 숨지고 8천가구가 피난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무장단체가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AFP·신화·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합틀라 피트라트 아프간 탈레반 정권 부대 병인은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자국 전역에서 민간인 110명이 숨지고 12명 다쳤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중에 어린이와 여성 6명도 포함

됐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33채가 파손됐으며 보건소와 학교도 각각 1곳씩 피해를 당했다며 파키스탄의 공습이 민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트라트 부대병인은 “이 잔혹한 폭격과 공격으로 8천400가구가 마을과 집을 떠나 피난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아프간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후계자 선출 유력”

이란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4일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테리서

널은 모즈타바가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후계자 후보로 거론됐다.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이끌 자질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그를 임명하자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